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 · 검소 · 절약 의식과 행동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women's and their moth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diligence, frugality, and economy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두 경 자

강사 홍계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Univ.

Associate prof : Kyung Ja Doo

Lecturer : Kye Ok Ho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nd college women's as daught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for diligence, frugality and economy and also analyze related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variabl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273 college women and their mothers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1) Three variables of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mothers and their daughters are still highly maintaine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ll of the consciousness and behavior variables except frugality between mothers and their daughters.
- 2) Mother's diligent consciousnes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ughter's frugality behavior and economy consciousness. Mother's economy consciousness and behavior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aughter's frugality behavior. Only mother's frugality consciousne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aughter's frugality consciousness and economy behavior.
- 3) The moth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frugality, and economy varie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ther's education, mother's job, income and social status.
- 4) The daught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s of diligence, frugality, and economy varies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allowance.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보편적으로 선진국의 소비증가는 증가하는 소득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조순, 1981). 그러나 1988-1997년까지의 한국도시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해 볼 때 1997년도의 소득은 1988년도의 3.5배로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같은 기간동안 약 3.2배로 증가하여(도시가계연보, 1998) 소득과 소비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는 오랫동안 완만히 증가해온 선진국의 소비수준을 능가하는 과소비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과소비 형태가 한국사회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과소비의 문제는 IMF이전까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학문분야에서도 이러한 한국사회의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소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미용, 1991; 백경미·제미경, 1991; 백경미·이기춘, 1993; 백경미, 1995; 김문희, 1996; 박명희외, 1996; 서정화외, 1998)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IMF구제금융기에 있는 현 한국 사회는 과소비 문제대신 절약저축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즉 IMF초기에는 절약과 저축을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절약과 저축생활을 권장하였던 결과 절약저축해야 살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절약저축 의식과 행동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IMF체제가 1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높은 절약의식과 행동이 경제회생에 오히려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기 침체시에 나타나는 과도한 근면·검소·절약에 관한 의식과 행동은 국가 경제의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불경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조순, 1981) 부적인 양상이라는 것이다. 현 1998년 1, 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중 실질소득은 10.8%감소(95년기준), 명목소득은 2.8%감소, 실질지출은 16.3%감소하여 소비감소가 소득감소보다 높아 소비의 비탄력성이 무너지고 있다(매일경제, 1998. 10. 14일자). 즉 1988-

1997년 동안은 소득과 소비증가가 유사하여 과소비 현상이, 1998년에는 소비감소가 소득감소보다 높은 과도한 가계경제긴축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소비와 과도한 근검절약(매일경제, 1998. 9. 7, 10·13·14·15·16·21, 한국경제, 1998. 7. 24, 9. 26)이라는 부적인 양극단만을 경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부유한 생활습관에 상당기간 젖어있던 관제로 경기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과소비가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근면·검소·절약의식과 행동이 높다고는 하나 정신적인 성숙에 동반된 절제에서 근면·검소·절약의식과 행동이 발생했다기 보다 경제위기와 경제침체라는 타율적인 불가항력에 의해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기가 호전되면 근면·검소·절약의식은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기가 호전될 미래에 과소비를 막고 절약과 사용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소비생활로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면·검소·절약의식과 행동정립이 요구된다. 즉 절약만 하는 소비생활이 아니라 아끼고 절약하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소비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소비생활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절약적 태도를 취하는 신검약지향생활표준이 필요하다(이연숙, 1998).

근면·검소·절약은 잠재적으로 우리 의식속에 남아 있는 옛 선현들의 의식과 행동에 그 뿌리를 둔다. 선현들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은 시대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해 왔으나 근면·검소·절약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미덕이 된다고 본 관점은 오늘날의 우리 경제상황에도 귀감이 된다.

유중립의 증보산림경제(1997)편에서는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을 구별하고 있다. 가령 10할을 써야 할 자리에 7, 8할을 쓰면 그것은 절약·검소하는 것이고 1, 2할을 쓴다면 그것은 인색한 것이다.'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근면·검소·절약을 권장한 것이 아니라 10할을 써야 하는 곳에 7, 8할을 쓸 줄 아는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고 우암선생 계녀서(1994)역에서도 송시열은 '의복과 음식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

지 말고 무단한 일에는 추호도 허비하지 말되 쓸데는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하여 아끼는 목적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검소하고 절약하되 쓸 곳에는 아끼지 말고 쓸 줄 아는 소비생활을 권고하였다. 이는 선현들의 가르침이었던 근면·검소·절약의식과 행동규범을 구시대적인 고답이 아니라 그 진리를 재음미하고 재조명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부적인 소비 형태 즉 과소비와 과도한 근면·검소·절약에서 벗어나 아낄 때와 쓸 때를 구분하여 근검절약하되 국가경제를 고려한 선현들의 뜻이 반영된 신검약 소비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소비와 근검절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소비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된 대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근면·검소·절약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근면·검소·절약이 가치를 간과해 온 결과로 생각된다. 현재 일고 있는 근면·검소·절약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하기도 전에 근면·검소·절약이 과도하여 경제회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는 성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고 있는 근면·검소·절약의 성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연 근면·검소·절약의 가치가 불식되어야 할 가치인지를 검토하여 근면·검소·절약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신검약 소비생활 규범이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어머니와 딸을 선택한 것은 가계가 내수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가계소비의 현재의 주체 또는 미래의 주체가 될 대상을 어머니와 성장한 딸로 보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은 어떠한 경향이 있으며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

소·절약 의식과 행동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선현들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개념

선현들은 물질을 인간의 정신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즉 물질적 가치를 학문이나 도덕 가치보다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백경미, 1998).

선현들은 인간이 자족할 수 있는 물질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그 범주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인간성이 유지된다(증보산림경제, 1997편, 우암선생계녀서, 1994역)고 보았고, 인간은 근면함을 통하여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근면한 생활을 높이 평가하고 권장하였다. 우암선생계녀서(1994역)에서는 근면을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도리라 하였고, 증보산림경제(1997편)에서는 근면을 열심히 일하는 덕목으로 파악하였다.

검소한 행동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에서는 검소한 지나치게 분수이상의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가정의 폐절차를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라 하였고 내훈(1994역)과 성호사설(1997편)에서는 사치를 경계하는 것을 검소라 보았다.

절약생활에 대해서는 재물을 아껴쓰는 것을 인간의 살아가는 도리라 믿고 남의 빚을 지지 않을 정도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물자의 절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암선생계녀서(1994역)에서는 절약은 재물을 아끼고 준절하는 도리이므로 부질없는 허비를 삼가고 쓸데는 아끼지 말고 쓰되 근거없는 일에는 전혀 허비하지 않도록 권면하여 절약과 인색을 구별하였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절약은 재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목민심서(정약용 저, 이을호 역, 1971)에서는 절약은 씹씹이에 한정을 두어 절제하는 것

이라 하였다.

손인수(1984)는 근면·검소·절약을 국가 민족의 건강을 표시하는 지표로 보고 근면·검소·절약이란 인간이 의식의 기본에 두고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필요한 도덕규범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선현들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은 소득과 소비가 현대와 같이 다양하지 못했던 시대에서 본 견해들이긴 하나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행복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기본 규범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현들의 근면, 검소, 절약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현대적인 소비생활의 의미를 가미하여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근면: 부지런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 및 행동.
- 검소: 분수 이상의 사치스러운 소비행동을 하지 않는 의식과 행동.
- 절약: 구매한 물건 및 물자를 아끼며 사용하는 의식과 행동.
- 신근검절약 행동: 근면으로 얻은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되 필요하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아끼지 말고 소비하는 의식과 행동

2.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소비행동의 특징

근면·검소·절약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어머니와 여대생의 소비자행동 특성을 통해 의식과 행동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어머니와 여대생 딸은 다른 세대를 형성하는 집단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는다.(Bengston, 1973; 황응연, 1975).

어머니세대는 40세-55세 전후인 중년세대로서 625사변 후의 경제복구와 경제개발기에 그들의 성장기를 보낸 세대이며(김인숙외, 1995), 타인, 사회, 환경을 배려하는 신중한 소비태도를 갖고, 물질보다는 마음의 풍요, 전통과 규범의 중시, 가정으로의 회귀, 분수에 맞는 생활, 이성적 구매태도를 나타낸다(김경훈, 1994).

여대생인 딸세대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꺾도에 오른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그들의 성장

기를 보낸 세대이며(김인숙외, 1995), 자본주의 경제 발달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물질적 풍요속에 성장한 세대이다(대흥기획, 1993). 따라서 소비행동을 즐기고, 소비하고 싶은 것은 꼭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에 집착할 것으로 짐작된다(김인숙외, 1995).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표 1〉 조사 대상자의 가정환경의 일반적 경향

(n=273)

변인	내용	N	%
아버지의 직업	비취업	1	4
	제1집단 전문직	142	52.0
	제2집단 일반사무직	107	39.2
	제3집단 단순노무직	23	8.4
계		273	100.0
어머니의 직업	비취업	212	78.8
	제1집단 전문직	18	6.7
	제2집단 일반사무직	26	9.7
	제3집단 단순노무직	13	4.8
계		269	100.0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4.4
	고졸-전문대졸	113	41.9
	대졸이상	145	53.7
계		270	100.0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8	14.2
	고졸-전문대졸	159	59.3
	대졸이상	71	26.5
계		268	100.0
월평균 소득	250만원이하	79	29.0
	251-450만원이하	150	55.2
	451만원이상	43	15.8
계		272	100.0
딸의 용돈(월)	20만원 이하	103	37.9
	21-30만원 이하	120	44.1
	31만원 이상	49	18.0
계		272	100.0

〈표 2〉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의 요인행렬표

문항내용		어머니				딸			
		요인1	요인2	요인3	R ²	요인1	요인2	요인3	R ²
근면 의식	근면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69			.48			.23	
	일하지 않고 얻는 큰 불로소득보다 땀흘리고 일해서 얻은 작은 보수가 더 값지다	.68			.65			.60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천명이나 작은 부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53			.47			.30	
	*월수룩 일을 적게 하면서 편히 살고 싶다	.36			.44			.14	
검소 의식	*집은 크고 넓을수록 좋다		.66	.18		.58		.35	
	*반찬가지수를 줄이면 건강에도 해롭고 식사를 즐겁게 하기가 어렵다		.38	.18		.53		.29	
	*호의호식이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삶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53	.30		.38		.22	
절약 의식	한 번 산 물건은 정성스럽게 관리하여 오래 사용하는 것이 좋다			.49	.31			.63	.44
	에너지 절약의 한 가지 방법은 대중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48	.31			.56	.28
	*관혼상제의 비용은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남들 하는 것 만큼은 써야 한다			.56	.32			.38	.11
고 유 값		3.19	1.19	1.37	3.53	1.47	1.19		
설명변량		25.34	12.74	9.19	24.98	10.58	8.43		
전체변량			42.27			43.99			

* 역코딩 문항

2. 측정도구

1)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에 대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척도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총 20문항을 작성하여 상관계수를 기초로 주성분 분석방법으로 varimax를, 사각회전 방법중 promax를 통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외시킨 문항의 합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척도구성은 5점 리커트식이며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계수는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이 각각 .79, .74, .70이었고 딸의 근면검소절약 의식은 각각 .80, .75, .72이었으며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행동은 각각 .77, .68, .63이었고 딸의 근면검소절약 행동은 각각 .72, .69, .6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 과정은 기초자료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9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S대학의 3학년 학생 30명을 질문지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질문지 배부, 면접요령, 수거관리요령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 이들에게 10부씩의 질문지를 주고 서울시의 전 영역이 고루 포함 되도록 지역을 분배한 유의 추출 방식이었다.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기록이 미비한 일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실제의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273쌍이었다.

자료분석은 SAS PC+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paired t-test, 일원변량분석, DMR,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행동의 요인행렬표

문항내용	어머니				딸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근면 행동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한다	.83			.72	.52			.47
시간약속을 정확히 지킨다	.60			.37	.32			.29
* 게으르다는 평을 자주 듣는다	.49			.30	.58			.76
검소 행동								
남이 입던 옷이나 소지품을 물려 받아 사용한다		.54		.30		.31		.24
* 물건을 살 때는 될 수 있으면 메이커를 보고 산다		.50		.26		.54		.30
구두 굽을 바꾸거나 바닥창을 갈아끼우는 등 구두를 수선하여 신는다		.49		.27		.42		.27
바겐세일이나 중고품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30		.22		.39		.26
절약 행동								
* 카드사용대금이나 예상외의 지출 등으로 생활비나 용돈이 부족할 때가 있다			.56	.40			.51	.53
* 옷은 싫증이 나서 못 입는다			.32	.39			.50	.43
음식을 만들 경우 손이 크다는 평을 듣는다			.31	.38			.43	.32
고 유 값	3.14	2.09	1.52		3.03	2.13	1.45	
설명변량	20.95	13.89	10.14		19.55	13.78	9.37	
전체변량		44.98				42.70		

* 역코딩 문항

〈표 4〉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

(n=273)

	근 면					검 소					절 약				
	의식		행동		t값	의식		행동		t값	의식		행동		t값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	3.63	0.59	3.94	0.65	-9.77***	3.25	0.72	3.24	0.68	4.16***	3.74	0.60	3.71	0.54	8.35***
딸	3.39	0.58	3.36	0.63	2.35***	3.19	0.64	3.15	0.54	3.93***	3.64	0.57	3.39	0.59	10.39***
t값	4.67***		1.60***			1.02		1.78			2.04*		6.64***		

*p<.05 **p<.01 ***p<.001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와 딸의 근면절약 의식과 행동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에 제시된바와 같이 어머니의 의식과 행동

을 보면 어머니의 근면, 검소, 절약 변인 모두에서 의식과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는 근면에서만 행동이 의식보다 높았고 검소, 절약에서는 의식이 행동보다 높았다.

딸의 근면의식과 행동, 검소의식과 행동, 절약을 의식과 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딸의 근면, 검소, 절약은 모두 의식이 행동보다 높았다. 이로써 근면을 제외한 어머니와 딸의 검소, 절약은 행동으로

<표 5> 어머니와 딸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

(n=273)

	변 인	어 머 니					
		근면의식	근면행동	검소의식	검소행동	절약의식	절약행동
딸	근면의식 행동	.069	-.029	.060	.074	.072	.062
		.105	.007	.037	.030	.062	.102
	검소의식 행동	.014	-.033	-.127*	-.012	-.027	-.035
		.159**	.104	-.018	.089	.157**	.177**
	절약의식 행동	.130*	.128*	-.127*	.031	.047	.033
		-.031	.021	-.130*	.002	-.022	.035

*P< .05, **P< .01, ***P< .001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을 비교한 결과 근면, 절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근면의식은 딸이, 근면행동은 어머니가 각각 높았고 절약의식과 행동 또한 어머니가 딸보다 높았다. 이는 근면의식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딸보다 근면 검소 절약에 관한 관심과 실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와 딸의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의 상관관계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근면 의식은 딸의 검소 행동, 절약 의식에, 어머니의 근면행동은 딸의 절약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검소 의식은 딸의 검소 의식에, 어머니의 검소의식은 딸의 절약 의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검소의식이 강한 어머니의 태도에 딸이 저항감을 느끼고 어머니보다 나은 풍요한 소비생활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절약 의식과 행동은 딸의 검소 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머니의 절약하고자 하는 의식과 행동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딸이 검소한 행동을 하게 됨을 반영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근면 검소 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암암리에 딸의 근면 검소 절약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어머니의 근검 절약 의식과 행동

<표 6>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검소 의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P< .05), 어머니의 직업(P< .05), 월평균 가계소득(P< .05)에, 어머니의 절약의식은 월평균 가계소득(P< .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검소의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M=3.30)에서 가장 높고 대졸이상의 집단(M=3.03)에서 가장 낮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이 단순직(M=3.45)인 경우와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250만원 이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이 윤택한 어머니들은 과소비에 익숙한 경향(Bae, Hanna, Lindamoud 1993, 박명희 1996)을 보여 검소, 절약의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근면행동은 어머니의 직업(P< .01), 가구의 월평균 소득(P< .05)에, 어머니의 검소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P< .001), 어머니의 직업(P< .001), 남편의 교육수준(P< .01), 남편의 직업(P< .01), 월평균 가계소득(P< .001)전체에, 어머니의 절약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P< .05), 월평균 가계소득(P< .05)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어머니의 근검절약 의식

(n=273)

종속변인		근면의식			검소의식			절약의식			
독립변인		N	M	F값	DMR	M	F값	DMR	M	F값	DMR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38	3.64			3.30		a	3.83		
	전문대졸이하	159	3.61	.37		3.34	4.66*	a	3.74	.47	
	대졸이상	71	3.68			3.03		b	3.71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12	3.62			3.27		a	3.75		
	단순직	13	3.45	1.01		3.45	1.96*	a	3.89	1.65	
	일반직	26	3.79			3.23		a	3.78		
	전문직	18	3.63			2.88		b	3.46		
남편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3.41			3.23			3.76		
	전문대졸이하	113	3.57	2.04		3.33	1.17		3.71	.18	
	대졸이상	145	3.68			3.20			3.75		
남편 직업	단순직	13	3.63			3.27			3.61		
	일반직	107	3.55	1.50		3.37	1.87		3.79	.86	
	전문직	142	3.68			3.19			3.70		
월평균 가계 소득	250만원이하	79	3.61			3.33		a	3.77		a
	251-450만원	150	3.67	.57		3.29	3.87*	a	3.78	3.50*	a
	450만원이상	43	3.56			2.98		b	3.52		b

*p<.05 **p<.01 ***p<.0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어머니의 근검절약 행동

(n=273)

종속변인		근면행동			검소행동			절약행동			
독립변인		N	M	F값	DMR	M	F값	DMR	M	F값	DMR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38	4.15		a	3.44		a	3.93		a
	전문대졸이하	159	3.89	2.57*	ab	3.36	13.31***	a	3.70	3.62*	b
	대졸이상	71	3.95		b	2.92		b	3.65		b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212	3.85		b	3.25		b	3.72		
	단순직	13	4.55	4.70***	a	3.77	6.67***	a	3.69	1.37	
	일반직	26	4.24		b	3.32		b	3.77		
	전문직	18	4.03		b	2.69		c	3.47		
남편 교육수준	중졸이하	12	4.08			3.39		b	3.93		
	전문대졸이하	113	3.95	.46		3.25	4.88**	a	3.73	1.50	
	대졸이상	145	3.91			3.14		b	3.67		
남편 직업	단순직	13	3.90			3.25		b	3.60		
	일반직	107	3.95	.13		3.44	6.73**	a	3.72	.28	
	전문직	142	3.90			3.13		b	3.68		
가계 월평균 소득	250만원이하	79	4.15		a	3.43		a	3.78		a
	251-450만원	150	3.90	2.99*	b	3.26	12.37***	a	3.73	4.23*	a
	450만원이상	43	3.86		b	2.81		b	3.50		b

*p<.05 **p<.01 ***p<.001

어머니의 근면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집단(M=4.15)에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단순적인 경우(M=4.55)에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월평균 25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가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단순직에 근무하면서 가사일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더 높은 근면행동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검소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M=3.44)에서 어머니의 직업이 단순직일 경우(M=3.77),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M=3.39, M=3.25)에서 가장 높았고 남편의 직업이 일반직인 집단(M=3.44),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25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집단의 어머니들이 검소행동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가용소득의 부족으로 부득이 검소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절약행동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M=3.93)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250만원 이하)에서 절약행동이 가장 높았다. <표 7>의 결과로 볼 때 어머니의 근면 검소 절약 행동은 생활이 어려운 집단에서 생활비가 부족한 어머니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의 행동을 나타낸다.

딸의 근면의식은 딸의 용돈의 크기에(p<.05), 딸의 검소의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p<.05), 딸의 용돈 크기(p<.001)에, 딸의 절약의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p<.05), 딸의 용돈 크기(p<.0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딸의 근면행동(p<.05), 딸의 검소행동(P<.001), 딸의 절약행동(p<.01)은 모두 딸의 용돈의 크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딸의 근면의식은 딸의 용돈 크기가 가장 적은 2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가장 높았고 딸의 검소의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M=3.07)과 딸의 용돈의 크기가 가장 적은 2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딸의 절약의식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M=3.98)과 딸의 용돈의 크기가 가장 적은 20만원 이하(M=7.12)의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딸의 근면 검소 절약행동 역시 딸의 용돈 크기가 가장 적은 20만원 이하의 집단(각각 M=3.47, M=3.28, M=3.53)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근면 검소 절약에 관한 의식 및 행동과 마찬가지로 딸이 또한 근면 검소 절약에 특별한 가치나 관심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당장 가용용돈의 부족으로 절약하여 쓰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써 용돈크기가 크게 증가할 경우 근면 검소 절약과는 무관한 의식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포함한다.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

(n=273)

종속변인		N		의 식						행 동					
				근면		검소		절약		근면		검소		절약	
				M	DMR	M	DMR	M	DMR	M	DMR	M	DMR	M	DMR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2)			3.07	a	3.98	a								
	전문대졸이하(113)			2.92	b	3.68	ab								
	대졸이상(145)			2.58	b	3.58	b								
	F값					3.61*									
딸의 용돈	20만원이하(103)	3.47	a	3.37	a	3.79	a	3.47	a	3.28	a	3.53	a		
	21-30만원(120)	3.39	ab	3.07	b	3.56	b	3.25	b	3.08	b	3.32	b		
	30만원이상(49)	3.24	b	3.06	b	3.48	b	3.42	a	3.00	b	3.26	b		
	F값			2.70*		7.16***		7.12***		3.10*		6.02***		5.01**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현들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에 기초를 두고 오늘날의 어머니와 딸인 여대생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 및 행동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비한 새시대의 근면 검소 절약에 관한 의식과 행동 규범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 의식과 행동 경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 척도에 평균 3.0이상),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어머니들의 근면 검소 절약의식과 행동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어머니의 경우 근면 행동이 의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딸의 경우 근면 의식이 근면 행동보다, 그리고 절약 의식이 절약 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 딸을 비교한 결과는 어머니는 근면 의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근면행동, 검소의식 및 행동, 절약의식 및 행동)에서 딸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어머니의 근검절약 의식 및 행동과 딸의 근검절약 의식 및 행동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의 근면의식, 근면행동, 어머니의 절약의식과 행동은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어머니의 지나치게 높은 검소의식은 딸의 검소의식, 절약의식, 절약행동 함양에 역효과를 나타내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절약의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직업이 단순직이며 저소득층인 어머니의 경우가 높고 어머니의 근면행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고 어머니의 직업이 단순직인 경우에 높았으며 어머니의 검소행동은 어머니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고 어머니의 직업은 단순직, 남편의 직업은 일반직인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높았고 어머니의 절약행동 역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층인 어머니가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딸의 경우, 딸의 검소의식과 절약의식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고 용돈

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딸이 가장 높았고 딸의 근면 검소 절약행동 역시 용돈을 가장 적게 받는 딸의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딸의 경우 공히 직업, 교육수준이 낮고 가용금전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의식과 행동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와 딸의 근면 검소 절약의식과 행동은 언제나 넉넉한 수입만 있으면 버려질 수 있는 가치임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분위기가 IMF이전에는 과소비를 타하는 분위기에서 IMF직후에는 근검절약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IMF체제 1년후의 현재는 또다시 근검절약의 과도한 정도에서 벗어나 내수를 촉진시켜 줄 적당한 소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만이 근면 검소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이 근검절약을 정신적으로 내면화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고소득층의 어머니와 딸의 근검절약의식과 행동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IMF이후에 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조선일보 1998. 9. 7) 고소득층의 소비가 더 감소하여 소비불황의 장기화를 우려한다(매일경제 1998. 9. 15)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근검절약의식과 행동이 낮았던 고소득층이 IMF이후 갑자기 근검절약에 가치를 두고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을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매일경제 1998. 10. 13) 가용금전을 높게 소유한 사람들은 경제를 관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비를 보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요컨대 현재 일고 있는 과도한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은 저소득층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금전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 고소득층은 투자성을 고려한 결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호전되면 모든 계층에서 과거의 소비생활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크다. 듀젠베리(Duesenberry, 1967)의 상대소득가설을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 보면 고소득층은 지난날의 최고소비수준에 의거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톱니효과의 심리를 나타낼 것이고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 뿐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비행위를 모방하려는 전시효과의 심리에서 과소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소비의 정도는 IMF체제의 궁핍생활을 보상하고자하는 심리가 첨가되어 과거보다 더 심각한 과소비 현상을 나타낼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때를 기회로 근검절약의 가치를 성급하게 평가절하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화 시킬수 있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다만 내수 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근검절약의 생활을 하되 꼭 필요한 곳에는 아끼지 않고 쓰며 평소 아껴서 모은 금전은 값지게 사용하는 신검약 소비생활정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근면 검소 절약의식과 행동에 관한 재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근검절약 소비생활 제시에 근검절약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근검절약은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필요한 가치이므로 미래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도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따라서 척도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응답자의 모든 상황과 심리를 질문지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양적조사방법과 질적조사방법을 병행한 심층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월평균 소득뿐 아니라 SES(Social economic status)를 고려한 종합적인 근검절약의 연구와 이에 상응하는 대처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경훈(1994) 한국인 트렌드. 실록출판사.
- 2) 김인숙, 정용선(1995) 세대별 소비지향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5호, 39-49.
- 3) 김문희(1996)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대흥기획(1993) 93년도 소비자집단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
- 5) 도시가계연보(1998) 통계청, 6월 발행.
- 6) 매일경제(1998) 10월 13, 15일 발행.
- 7)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6) 한국 도시근로자 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 대한가정학회지, 제 34권 5호, 209-222.
- 8) 백경미(1995) 도시 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백경미(1998)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제9권 제1호, 17-32.
- 10) 백경미, 이기춘(1993)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 영향이 과소비 성향에 미치는 효과: 목포시와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12.
- 11) 백경미, 제미경(1991) 과소비 문제에 관한 고찰. 인제대학교 인제논총.
- 12) 서정희, 석봉화(1998)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시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3호, 131-143.
- 13) 손인수(1984)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서울:민음사.
- 14) 이미용(1991) 과소비 영향요인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연숙(1998) 가정관리에서의 생활표준: 진단과 과제.
- 16) 조선일보(1998) 9월 7일 발행.
- 17) 조순(1981) 경제학원론: 법문사.
- 18) 황응연(1975)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19) 내훈: 소혜왕후 저: 김중권 역(1994), 명문당.
- 20) 목민심서: 정약용 저: 이을호 역(1971), 현암사.
- 21) 산림경제: 유충립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1997), 솔출판사.
- 22) 성호사설: 이익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1997), 솔출판사.
- 23) 우암선생계녀서: 송시열 저: 김중권 역”(1994).

명분당.

- 24) Bae, Hanna, & Lindamood(1993) Pattern of
overpending in U.S. househol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25) Bengtson, V.L.(1975)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 26) Duesenberry, J.(1967)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